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밥집은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어 줄까

개인적으로 성별·나이 불문하고 여러 목적의 친구 집단에 속해 있다. 그 중에서 최고는 역시 술친구다. 같이 술 마실 상대를 유지하는 건 나이를 먹을수록 중요하게 여겨진다. 살 날보다 산 날이 많아지고, 그래서 보내는 시간이 더 절실해지기 때문이다. 꺾어진다고들 흔히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서른다섯이면 그런 말 했다. 요즘은 오십 세는 되어야 한다. 오십이 넘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간다.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뜻이다. 그런 상황이니 술친구와 어디 가서 무얼 먹느냐도 그만큼 소중하다. 돈은 없지, 입맛은 오랜 경험(?)으로 높아졌지, 아무데나 갈 수는 없다.

한 일이다.

그걸 알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밥 먹으러 가는 일이 쉽지 않다. 대부분 그럴 겠지만 사람 정이 풀풀 묻어나는 그런 집애들 가고 싶다. 그렇다고 시냇마을 '난막 퍼취요, 원가 몰라요' 이런 집도 너무나 지나쳐서 별로이다. 못남겨서 이른바 앞으로 남고 뒤로 밀리는, 흑자 부도 날 것 같은 집도 싫다. 남길 것 남기되 그런 집 안 보이는 집이 좋다는 거다. 거잖 가다뽀네, 하실 텐데 사실 우리들 다수가 그런 집을 사랑하지 않는가.

남도는 예외 그 술친구들과 자주 찾게 된다. 주로 밥집을 많이 찾는다. 대포집도 기막히고 좋지만, 우선은 밥집이다. 밥집이란 백반집 같은 곳들이다. 여수나 순천·광주·목포 어디든 있는, 그런 수더분한 백반집들. 하다못해 대학가 앞에도 있는 밥집들. 그곳은 당최 원가가 무엇인지 학습할 수 없는 곳이다. 한 상 차려 받으면 계산 안 선다. 이렇게 내주고 칠 면서 손님 응대하는 느낌을 받는다. 요리도 그렇다. 재료비와 내 주머니 사정을 어찌 그렇게 잘도 일치시키는지. 호텔은 어쩌면 경영이라는 계산과 이익의 원칙 아래 움직이는 공간이니 그러는 게 당연

나, 주인이 자가에서 장사하는 경우도 많다. 하기가 자가여서 월세 안 내니 음식 값이 싸다는 건 어찌가 있다. 임대 내주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그걸 계산에 넣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참 싸다.

신선식품은 멀리 이동하면 값이 떨어지니 지역이 싸진 싸다. 하지만 곱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한 상 받는 것이 마뜩하지만은 않다. 우선은 주인이 유행어로 "자신을 갈아 넣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경쟁 심하지, 평생 식당노동 말고 다른 걸 생각해 보지 않았지, 그러니 휴일도 심지어 쉬는 일이 별로 없다. 이런 밥집에 가서 보라. 주인아주머니는 손님이 없는 휴식 시간 비슷한 때에도 쉬는 법을 모른다. 연신 양손으로 땀을 흘린다. 쪽파를 다듬고, 고구마 줄기를 벗긴다. 마늘을 쪼고, 호박을 썰다. 해안가 식당이라면 가게 밖 건조대에 말리고 있는 생지 학습할 수 없는 곳이다. 한 상 차려 받으면 계산 안 선다. 이렇게 내주고 칠 면서 손님 응대하는 느낌을 받는다. 요리도 그렇다. 재료비와 내 주머니 사정을 어찌 그렇게 잘도 일치시키는지. 호텔은 어쩌면 경영이라는 계산과 이익의 원칙 아래 움직이는 공간이니 그러는 게 당연

시고 일찌감치 취해 버린 일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말을 어디 가서 용감히 하지도 못한다. 시방, 당신이 도시에서 와서 우리 동네 밥값 올리라는 것이여 뭐여. 이런 말 많이 들어봤다. 하지만 육막더라도 말하고 싶다. 밥값이 너무 싸면 그 가게는 못 버틴다. 밥집 다니면서 주인들에게 좀 물어보시라. 언제까지 이 일 하시겠느냐고.

"아이고, 무릎이, 심장이안 좋아서 이제 못해. 영감이란 달리 할 것 없으니 불 들고는 있지만. (물려주시면 되잖소?) 땀, 내 고생을 새기들한테까지 남기라고? 하기가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이고. 우리 대에서 끝내야지. 이제 끝이여. 나까지 하고 끝이여."

이런 대우들, 듣기 딱 좋다. 그럴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밥다운 밥을 먹을 것인가. 반찬만 가지고도 술을 세 병, 네 병 마실 수 있는 이 멋진 상을 어디 가서 받아볼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미안해서 뭐라고 겁나가는 안주를 시킬까 하면 맨살에 술 마시는 동네 어른들 불편하실까 염려되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다.

〈윤성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부모님 눈은 안녕하십니까?



조형진 보리안과병원 원장

이번 추석 연휴에는 형제들 모두 조용한 명절을 보내기로 했다. 올 초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친지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번 명절은 거리 두기를 위해 아쉬운 마음을 접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명절 인사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올해는 특히나 '건강'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고 건강식품 선물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니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게 느껴진다. 최근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는 부모님과 과 감진에 대한 문의가 늘었는데, 감진 후 대개 노화로 인한 백내장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인해 발생하는 안질환이다. 나이를 거꾸로 먹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이라는 말이다. 나이가 들어가며 여가져지 아픈 곳이 생기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년 질환을 꼽자면 단연 백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60대 10명 중 5-6명, 80대는 대부분이 백내장이 생긴다.

우리 눈을 카메라에 비유하자면 수정체를 카메라 렌즈로 볼 수 있다. 렌즈가 뿌옇게 되면 출력된 사진이 선명하지 않는 것처럼 백내장은 투명해 젤리 모양의 수정체가 노화로 인해 혼탁해지고, 눈에 들어오는 외부 빛이 제대로 투과되지 못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답답하게 보이는 질환이다.

초기 백내장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는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증상을 유지하거나 좋아지게 할 수 없어 현재 유일한 치료 방법은 수술이다. 백내장을 방치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술이 어렵거나 실명에 이를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해야 한다. 반대로 진단 즉시 수술하는 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수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비슷한 정도의 백내장이더라도 개개인마다 느끼는 차이가 있으므로 백내장을 진단받았다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의뢰진과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백내장 수술 방법은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이다. 기존 백내장 수술은 칼을 사용하는 수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레이저를 활용한 수술이 각광받고 있다. 칼을 사용하던 수술이 의사의 경험과 감각에 의지해야 했다면 레이저 백내장은 절개가 필요한 모든 과정을 칼이 아닌 레이저로 진행해 더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또한 수정체를 자르고 유회하는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를 사용했던 반면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저에너지로 진행되어 각막 내피 세포 손상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

환자의 직업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인공 수정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인공 수정체를 크게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구분하는데 단초점이 가까운 거리, 중간거리, 먼 거리 중 한 곳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다초점은 세 곳 모두에 초점을 맞추

어 수술 후 안경이나 돋보기 없는 생활이 가능하다. 돋보기 안경이 불편한 사람,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눈의 상태, 생활 습관을 의뢰진과 충분히 상의한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렌즈를 선택해야 한다.

백내장을 피할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나 모자를 잘 착용해서 눈으로 침투하는 자외선을 막아 주는 것이 좋고,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는 과일과 야채를 자주 섭취하는 것도 좋다. 흡연자가 백내장 진행 속도가 더욱 빠르기 때문에 금연을 하고, 스마트폰 등 전자파를 유발하는 기기를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때와는 다른 이번 추석, 부모님들의 불편함을 느껴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거나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표현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흔하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의 건강에 꼭 관심을 가져 보고, 눈은 잘 보이시는지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여쭙어 멀리서나마 효도를 할 수 있길 바란다.

기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국립공원 탐방의 진화



이천규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범지구적인 상황은 우리의 삶을 뒤엎어놓아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도 몇 번의 큰 위기가 찾아왔고 정부와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했다. 연일 언론 매체에서는 감염자 숫자를 발표하고 재난 문자가 전파 경로를 알리는 나날 속에서, 낯설게만 느껴졌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로의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영향을 받았다. 외출과 여행을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8월 기준 전년 대비 19% 감소하였고, 국립공원의 각종 문화 행사도 올해는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됐다.

변화된 탐방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코로나 불루'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공원 또한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변화의 키워드는 '비대면'과 '비접촉'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의 경우 해상 국립공원만의 독특한 경관을 선박에 탑승해 바다 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해상 탐방 프로그램을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하고 알릴 예정이다. 영상을 통해 소개되는 해상에서의 경관과 섬들의 이야기는 코로나에 지친 이들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나아가 해상 탐방 프로그램의 인지도가 오르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지역 주민이 직접 해상 투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 자원과 자연 해설을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

츠로 제작해 유튜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채널을 통해 제공 중이다. 언제 어디서든 감상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는 코로나에 지친 일상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힐링의 기회가 될 것이다.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공원 현장도 변화했다. 우선 신안군 흑산도와 흥도에는 탐방객을 위한 비대면 생태 탐방로(Eco Trail)가 시범적으로 조성됐다. 생태 탐방로는 자연환경 해설사의 해설이 없이도 국립공원의 풍부한 식생을 경험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곳곳에 후박나무를 포함한 65종의 자생식물을 소개하는 수백 개의 시목 표찰을 설치했다. 현장 관리에도 비대면 기술을 접목했다. 흑산도, 흥도, 조도, 관매도와 같은 탐방객이 주로 찾는 도서 지역에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ICT 혁신기술 기반 CCTV가 도입됐다. 이 CCTV는 탐방객을 감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사용과 같은 이용자 수칙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쌍방향 소통 기능을 활용해 탐방 안내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한다.

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캠페인도 변화했다.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돌피니바다 유치원'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과 체험 키트 제공을 통해 비대면으로 운영된다. 코로나로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만 2000여 명의 미래 세대가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탐방객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심폐 소생 교육도 '비대면 심폐 소생 체험존'으로 모습을 바꿨다. 강사가 없이도 동영상 교육, 음성 안내, 체험 장비를 통해 심폐 소생술을 익히고 자체 테스트까지 가능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교육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여객선사의 좌석 시트 홍보 문구 표기와 QR코드 같은 비대면 아이템들 활용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코로나가 가져온 환경의 변화는 국립공원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변화의 바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바람에 맞춰 국립공원은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발굴하고, 안전하고 다양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장구(長久)한 시간 동안 본연의 자리를 지켜온 자연처럼 국립공원은 늘 국민들 옆에 자리하며 자연의 혜택을 되돌려 드릴 것이다.

社說

정부의 '연구 개발' 투자 지역편중 시정해야

정부의 연구 개발(R&D)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득이나 수도권·영남권에 비해 인구·경제 규모나 산업 기반 등이 열악한 호남권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 소외는 물론 미래 경쟁력도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 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7.9%가 집중됐다.

이에 비해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고작 22.1% 지원되는 데 그쳤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33조2481억 원에 달하는 R&D 예산 중 수도권에는 30.4%인 10조1004억 원, 대전에는 47.5%인 15조7877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광주는 고작 2%대 지원에 그쳤다. 중소기업기업부의 '최근 5년간 TIPS(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선정 기업'에서도 전남은 0.3%로 가장 낮았고, 광주 역시 1.8%에 불과했다.

수도권과 대전에 R&D사업이 편중되는 이유는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전남도가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나섰지만 충북에 고배를 마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의 국책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특정 지역만 대폭 지원해 준다면 그렇지 않은 지방은 아예 역량을 강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 개발 관련 국책기관과 시설 등을 열악한 지방에도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모사업이 지역의 빈약한 부익부 현상만 부추겨서는 안 될 일이다.

화력발전 피해 예방 위한 시설세 인상을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시도가 화력 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 오염 등 피해를 복구하거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세금은 쥐꼬리 수준이어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과 인천·강원·충남·경남 등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5개 시도에서는 그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원자력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실제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 5개 시도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은 1kW/h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1kWh당 1.0

원)의 30%에 불과하다. 이 세금은 환경 오염 피해 지역 복구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된다. 한데, 더 많은 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이 매겨지고 있는 것이다.

전남 4기를 포함 60기에 이르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미세먼지 등 연간 22만 6000t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는 호흡기·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해 주민 건강을 해치고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21대 국회 들어 새로 발의된 상태다. 정부와 국회는 화력발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 주고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화력발전 시설세 세율 인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요즘 서점에 들르면 꼭 '작은 갤러리'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언제부터인지 책 표지에 회화 작품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고흐의 작품 등 '명화'들이 가끔 쓰였다면 최근엔 낯선 현대회화가 자주 보인다. 덕분에 새로운 국내외 작가들을 많이 알게 된다. 아 울러 인터넷에서 그들의 작품을 찾아보며 그림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누군가의 '뒷모습'을 표지로 삼은 책들이 있다. 얼굴 표정 등을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앞모습보다 엔지미지의 세

역시 '난다'에서 나온 문학평론가 고(故) 황현산의 책 표지는 모두 독일 작가 팀 아이텔의 작품이다. 감정 옷을 입은, 머리가 희끗한 한 남자가 무언가를 쓰고 있는 뒷모습을 담은 '무제(관찰자)'는 베스트셀러 '밤이 선생이다'에 쓰였다. 반바지 차림의 노인이 푸른 가방을 맨 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작품 '블루백(Blue Bag)'은 트위터 모음집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의 표지가 됐다. 또 다른 책 '사소한 부탁' '잘 표현된 불행'에도 그의 작품이 표지에 쓰였다.

뒷모습

그밖에 피자에 적혀 있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글귀가 사람을 뜨끔하게 하는 언론인 권석천의 '사람에 대한 예의'나 문학평론가 신형철의 산문집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역시 표지에 강렬한 인상의 남자 뒷모습이 보인다.

미셸 투르니에가 에두아르 부바의 흑백 사진 50여 점과 함께 펴낸 산문집 '뒷모습'에는 '등은 거지밭을 할 줄 모른다'는 대목이 나온다. 결국 나의 진짜는 '뒷모습'에 있을지도 모른다. 숨기고, 치장하는 게 불가능한.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윤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